



한솔로지스틱스, 항만 안전관리 '최우수상'

한솔로지스틱스가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한 '제1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9일 한솔로지스틱스에 따르면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는 우수한 항만사업장 안전관리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전국 11개 국가관리 무역항 소재 항만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한솔로지스틱스



우리카드, 기업카드 모집 채널 다변화

우리카드는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민간 입찰 솔루션 '큐비드(Q-Bid)'를 운영하는 나이스디앤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카드 모집 채널 다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양사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대기업·중소기업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카드



마사회, 보훈가족 '힐링승마' 확대

한국마사회가 국가보훈부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가족의 심신 치유 및 여가복지 확대에 나선다. 9일 마사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보훈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힐링승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힐링승마를 공동 지원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국마사회



신보·iM뱅크·대구시, 지역 중소기업 지원 맞춘

신용보증기금과 iM뱅크, 대구광역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대구광역시, iM뱅크와 '대구광역시 경기 취약 업종 영위 중소기업 성장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신용보증기금

인사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디지털경제 통상과장 운영범
◆기획예산처 ◇부이사관 승진 △기획예산처 이지원 △기획예산처 조규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개발 부문 총괄이사 김경재

부음 ▲남양일씨 별세, 박진식(의료법인 해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씨 장인상=9일, 인천세종병원 장례식장 특 6·7호실, 발인 11일 오전 9시, 장지 경기도 군자읍 소망수양관. 032-240-8400
▲노영숙씨 별세, 임정근·임대근(전 안동MBC 대표이사)씨 모친상, 최해경씨 시모상=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0일 오전 4시 40분, 장지 분당 스카이캐슬추모공원. 02-3010-2000

SK이노베이션 E&S, 부산·인니 창업 생태계 연결

부산서 '클라이밋 솔브 워크' 개최
AI 기후테크 창업 협력방안 논의
인니 우수팀 CENTAP 방문·상담

SK이노베이션 E&S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해 온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연계해 양국 청년의 창업 역량을 높이고 교류를 확대한다.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총 6일간 부산에서 '클라이밋 솔브 워크(Climat SOLVE Week)'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SK이노베이션 E&S가 부산과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추진해 온 '아임인부산'과 '마주온(MAJU:ON)'을 통합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는 '임팩트 해커톤'과 AI 기반 기후테크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솔브 컨퍼런스',



8일 부산항전시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SOLVE 컨퍼런스에서 (왼쪽부터) 최정석 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지용민 SK이노베이션 지속가능경영실장, 손동근 SK이노베이션E&S 인도네시아 법인장, Ali Andika Wardhana 주한인니대사관 부대사, 최만재 부산시 미래에너지과장, 김용우 부산시 창조경제센터장, 정제현 유디임팩트 부사장, 안태욱 카이스트 창업원 교수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E&S

부산센텀기술창업타운(CENTAP)을 둘러보는 '벤처마킹 투어'로 구성됐다. 8일 열린 솔브 컨퍼런스에는 주요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해 AI 기반 기후테크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부산·인도네시아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의 디지털 혁신 정책과 창업 생태계 육성 사례, SK그룹의 지역 기반 스타트업 육성과 오픈이노베이션 사례도 공유됐다. 벤처마킹 투어에는 지난 5월 마주온 행사에서 우수팀으로 선정된 '하이그라(AIGRA)'와 '라이프가드(Lifeguard

s)'가 참여한다. 이들은 부산의 창업 지원 정책과 입주기업의 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롯데, 인니서 글로벌 잡페어 개최

9개 계열사 참여 현지 인재 확보
취준생 600명 채용 상담·면접

롯데가 해외 현지 인재 확보에 나섰다. 롯데는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26 롯데 글로벌 잡페어(2026 LOTTE Global Job Fair)'를 개최했다. 롯데 글로벌 잡페어는 글로벌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현지에서 진행되는 채용 행사다. 롯데캐미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9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롯데는 행사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현지 취업준비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롯데그룹 및 계열사의 사업을 소개하고, 현직자와의 채용 상담 및 모의면접 등을 진행한다. 또한 참여 계열사 홍보 부스와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한 '2025 롯데 글로벌 잡페어' 행사 현장. /롯데지주

롯데는 지난해 8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잡페어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개최지로 인도네시아를 선정했다. 인도네시아는 롯데의 핵심 국가 중 하나로 롯데는 2008년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현재는 12개 계열사가 진출해 유통, 화학, 물류, IT, 건설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GC녹십자, 기술수출·글로벌 매각성과 인정

오픈이노베이션 유공 협회장 표창

GC녹십자가 기술수출 및 글로벌 매각을 통해 K바이오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GC녹십자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6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유공 포상'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독자 기술과 신약개발

을 위한 연구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되는 영예다. GC녹십자는 자체 개발 백신을 글로벌 빅파마에 매각하며 연구개발 역량을 입증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차세대 혁신 신약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실제로 올해 5월 미국 일라이 릴리와 약 462억원 수준의 대형 계약을 맺는 성과를 창출했다.

/이청하 기자

애경산업, 현대미술 거장과 K-뷰티 협업

‘게오르그 바젤리츠 회고전’ 후원
에이지투웨니스·루나 체험부스

애경산업이 현대미술 거장의 공간에서 K뷰티를 확산하며 새로운 문화적 영감을 선사한다.

애경산업은 세화미술관에서 열리는 '게오르그 바젤리츠 회고전'을 공식 후원한다고 9일 밝혔다. 거장의 작품이

주는 시각적 감흥과 뷰티 브랜드의 미적 감각이 만나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애경산업은 세화미술관 1층에 자사 뷰티 브랜드를 주제로 한 전용 부스를 선보인다. 스킨 퍼스트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와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현대차그룹, 납품대금 2.2조 조기 지급

추석 앞 협력사 자금 부담 완화
지역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자금 부담을 낮추고 취약계층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상생 활동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9일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건설·현대제철 등 주요 그룹사가 부품·원자재·소모품 등을 거래하는 6000여개 협력사에 총 2조2562억원의 납품대금을 기존 지급일보다 최대 23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과 임금, 원부자재 대금 등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협력사의 부담을 덜어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에도 2·3차 협력사에 대한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권고해 상생 효과를 협력망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해왔다. 지난해 추석에는 2조228억원, 올해 설에는 2조768억원을 각각 선지급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도 병행한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임직원은 결연기관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울산 북구 호계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열어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대제철·현대건설·현대로템·현대트랜시스·현대글로벌비도 명절 선물과 식사 지원, 배식 및 식료품 전달 등에 나선다. 현대오트모에는 농가에서 상품성이 낮은 과일을 수매해 4만봉 이상의 과일칩으로 가공, 취약계층 약 6600 가구에 전달하는 '살림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제철·포스코, 美 제철소 지역밀착 강화

루이지애나서 '커뮤니티 데이' 개최
주민 대상 제철소·한국문화 알려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의 본격적인 건설을 앞두고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현대제철-포스코 루이지애나 제철소(HPLS)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어센션 패리시 도널슨빌의 루이지애나 스퀘어에서 'HPLS 커뮤니티 데이'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기로 제철소와 한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장소인 루이지애나 스퀘어는 1806년 조성돼 각종 축제가 열리는 지역 대표 문화 공간이다.

HPLS는 지역 공연팀의 축하공연과 제철소 건설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잡발리아와 치킨 wings 등 현지 음식과 닭강정 등 한식도 제공했다.

김형진 HPLS CEO 겸 현대제철 북미철강사업부장(전무)은 제철소 건설



김형진 HPLS CEO 겸 현대제철 북미철강사업부장(전무)이 크로이 설리번 도널슨빌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진 전무, 크로이 설리번 시장) /현대제철

준비 과정에 협력한 어센션 패리시 관계자와 도널슨빌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크로이 설리번 도널슨빌 시장은 "HPLS 기공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기쁘다"며 "HPLS는 도널슨빌 시민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